

# 2011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 연수기간 : 9. 17(토) ~ 9. 23(목)  
6박 7일(국내일정포함)
- 연수장소 : 캄보디아, 베트남
- 제 출 자 : 총10명
  - 의원(6명) : 이화동, 정철희, 정수길  
이재영, 최옥정, 임용수
  - 직원(4명) : 김영학, 장정진, 임덕근  
서선희



**함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2011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연수목적

친환경 녹색농업 실천현장 시찰 및 전통 문화유적 등 보존 실태를 벤치마킹하여 함평군의 미래 농업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문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의정 활동 능력 향상

## I. 연수개요

- 연수기간 : 9. 17(토) ~ 9. 23(목)/ 6박 7일(국내일정포함)
- 연수장소 : 캄보디아, 베트남
  - 캄보디아 : 망고농장, 앙코르 유적지, 자이바르만7세 병원
  - 베트남 : 하롱베이 세계자연유산, 하노이 농과대학
- 연수인원 : 총10명
  - 의원(6명) : 이화동, 정철희, 정수길, 이재영, 최옥정, 임용수
  - 직원(4명) : 김영학, 장정진, 임덕근, 서선희

## II. 연수총평

- 금번 연수는 제6대 의회의 최초 해외연수로서, 의원 상호간에 마음을 열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더욱 화합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근거리 지역인 동남아 지역으로 연수 장소 선정.
-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다소 폐쇄적인 정치적, 사회적 여건과 가급적 관내 여행업체를 선정한 관계로 영세함과 네트워킹 부재로 사전에 방문기관 섭외나 정보 수집은 부족하였지만, 현지에서 의원들의 탐구욕과 가이드의 열정적인 안내로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하고, 향후 발전적으로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연수가 될 수 있었음.

### Ⅲ. 연수내용

#### 1. 씨엠립 망고농장 (2011. 9. 19. 월. 맑음)

##### □ 망고농장 개요

- 농장위치 : 씨엠립시 앙코르 유적지 인근
- 농장명칭 : 월드팜 망고농장
- 농장대표 : 금도선
- 농장규모 : 3ha (주요 재배작목 : 망고, 용과)

##### □ 주요 시찰내용

- 농장주인 금도선씨는 강원도 출신으로 6년간 가이드 생활을 하다 2년 전부터 망고농장을 월 1,500불에 임대하여 농장을 직접 운영 중
- 농장은 3ha 규모로 망고 230그루, 용과(dragon fruit) 250그루, 그 외 다양한 열대 과일 재배 중
- 현재 재배 2년차로 아직까지는 출하를 하고 있지 않으며, 가공품은 단순한 주스를 만드는데 그치고 있음
- 수출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내수용으로 그루당 60불의 수확을 예상하고 있음
- 또한, 향후 관광업계와 연계하여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장 방문 및 생과 시식체험, 가공품 판매를 목표를 하고 있고, 상근 인력 10명으로 농장관리와 시설 확충을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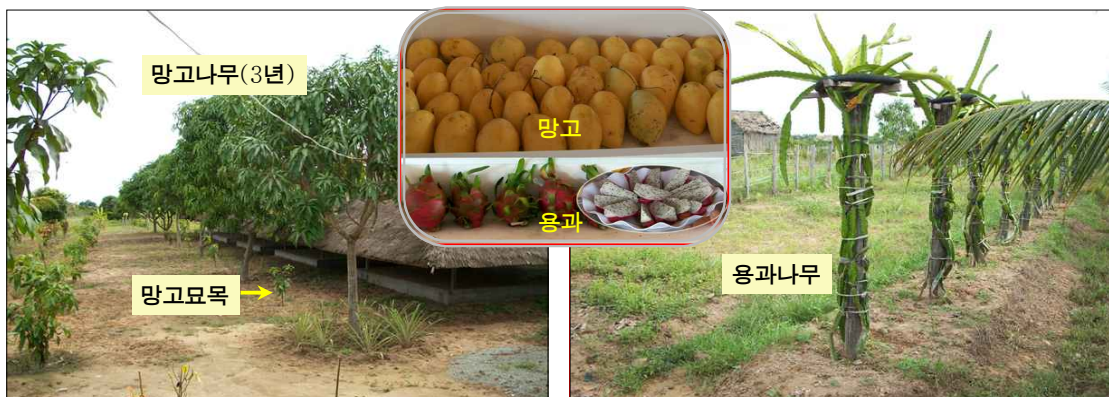
△ 월드팜 망고농장 외부 전경



△ 금도선 월드팜 망고농장 대표와의 대화

## □ 한국에서 망고 재배의 장점

- 금도선 대표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성공적인 망고 재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음.
- 망고는 1년에 2차례 (4~5월, 12월) 수확이 가능하며, 겨울철 수확은 여름철 수확보다 2배 가격.
- 망고는 중간 교잡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 반응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망고를 만들어 낼 수 있어 한국 기후에 맞는 육종도 가능하리라고 봄
- 이 농장에서는 끝이 노란 옐로우 망고만을 재배하고 있는데, 망고는 종류가 많고,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한국인 입맛과 기후에 맞는 적정 품종을 찾을 수 있음.
- 현지에서도 망고를 재배하는 동안 개미약만 조금하면 되고, 농약은 전혀 하지 않아, 갈수록 유기농 과일만을 찾고 있는 한국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한국에 수출되는 망고는 주로 필리핀산으로 이곳에서도 갈수록 인건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입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지지 않을 것임.
-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한국도 아열대성 기후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대과일 재배를 선점한다면, 과일 생산과 수확체험, 가공상품, 부가 상품개발에서 앞서 갈 수 있을 것임.



△ 농장의 망고나무와 용과나무

## □ 함평에 도입 가능한 부분 검토

- 현지에서 의원들간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 도출
- 열대화 되어 가고 있는 기후에 맞춰 열대과일 재배 필요성에 모두 인식 같이함.
- 망고는 우리 입맛에도 맛고, 열대과일 특유의 냄새에 대한 거부감도 없으며, 다양한 가공상품과 식품개발에 적합함
- 함평에서 재배할 경우, 하우스 시설이 필수적이며, 품종개발, 육종확보, 난방비, 보관·유통시설, 재배기술 등의 해결이 관건.
- 현재, 관내 제로하우스에서 폐열을 활용하여 망고의 시험재배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남 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시범재배지로 선정되도록 하고, 다양한 품종연구와 재배기술 습득이 함께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관내 다문화가정 중 동남아 이주여성들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망고나 용과의 이식과 수확시기, 재배기술 등을 습득할 수도 있을 것임.
- 제주도 망고농장의 경우 지열을 통해 3천만원이 들어가는 난방비를 1천만원으로 경감시킨 효과가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견학도 필요할 것임.
- 제로하우스에서는 인슈블럭을 활용한 비닐하우스를 개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나 보급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치권이나 정부에 건의 필요함.



△ 망고농장에 전시된 열대과일 가공상품



△ 망고농장대표와 기념촬영

## 2. 앙코르 문화유적 (2011. 9. 19. 월. 맑음)

### □ 앙코르 유적 개요

- 유적위치 : 캄보디아 씨엠립 (Siem Reap)州
- 조성시기 : AD 9~15세기 (앙코르왕조)
- 시찰관점 : 문화유적의 보존 실태 및 실생활 활용 사례
- 주요 탐방경로 : ①타프롬사원 → ②앙코르왓 → ③앙코르툼



### □ 타프롬 사원 문화재 관리실태

- 타프롬 사원은 12세기말 앙코르왕조 자야바르만 7세때 건립된 사원으로 유적의 훼손이 심해 석재가 도처에 널려 있고, 거대한 스폰나무가 담장과 건축물을 파고들고 있어 붕괴 위기에 있음.



- 현재는 나무와 건축물이 엉켜있는 상태로 나무를 제거하면 수축으로 인해 건축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나무가 더 자라게 방치하면 결국 건물이 무너질 것이므로, 나무별 번호를 부여하여 성장 억제제를 투여하는 등 현상유지에 노력하고 있음

△ 건축물을 누르고 있는 나무를 넘버링하여 성장억제제로 관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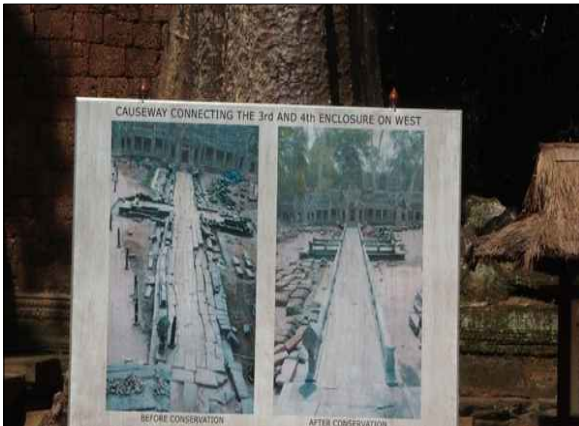
- 방문 당시,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사원 성벽과 건물간 연결도로(코즈웨이)를 복원 중에 있었으며, 유네스코에서는 앙코르 유적을 “세계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되어야 할 크메르 유적의 진주”로 평가하고 있음.



△ 스펡나무 뿌리와 엉켜있는 타프롬사원 유적



△ 타프롬 사원 성벽을 복원 중인 작업 장면



△서쪽 방벽과 연결하는 통로 복원사업 전후



△유네스코의 앙코르유산 보전 당위성 안내판

## □ 앙코르왓, 앙코르툼 문화재 관리 실태

- 앙코르왓은 12세기 수르야바르만2세때 건립된 힌두교 건축물로 캄보디아 국기에 그려져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임.
- 앙코르툼은 12세기 말 자야바르만7세때 건립되었으며, 큰 도시란 뜻으로 전체 면적이 9km<sup>2</sup>에 달하며, 중앙에 불교 건축물인 바이온 사원이 위치해 있음.
- 1860년 프랑스에 의해 발견된 이후 약탈과 도굴이 이어졌고, 1972년 폴포트가 이끈 크메르루즈 군과의 내전으로 유적의 훼손이 심화되었다고 함.

- 1993년 유네스코 후원하에 “앙코르 역사 유적지 보호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를 통해 일본과 프랑스가 주도하여 내전 당시 설치된 지뢰를 2만5천개 이상 제거하고, 복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중국, 스위스, 이탈리아, 한국 등 10여개국이 복구사업단에 참여 중.
- 앙코르 유적의 복원사업은 현재까지 5천만달러 이상이 들어갔으며, 매년 5백만달러가 사용되는데, 유적의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연간 외국인 관광객만 100만명이 넘어서고 있고, 2010년에는 2009년대비 16% 관광객이 증가하였으며, 2011년 1/4분기 동안 전년동기 14%가 증가하였다고 함.
- 연수팀이 방문시, 앙코르왓은 중앙부를 중심으로 한창 보수공사 중이었으며, 앙코르톰 내 바이온사원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복원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였음.



△앙코르왓 복원 작업 장면



△앙코르왓 회랑 천정의 보수 후 모습



△ 캄보디아 내전시 앙코르왓 사원 기둥의 총탄흔적



△앙코르톰내 바이온사원의 복원을 위해 일본정부가 지원을 했다는 안내판



## □ 캄보디아인의 앙코르 문화와의 일체감

- 앙코르 유적은 9~15세기에 캄보디아인의 85%인 크메르족의 수도로서 힌두교와 불교 문화를 집대성한 건축 규모와 예술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 일컬을 수 있었음.
- 현재도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문화에서 앙코르 유적의 조각과 디자인, 정신을 생활 전반에서 활용하고 있었고, 그들의 생활문화와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느꼈음.



△ 머리7개 달린 뱀의 신 나가와 뱀 몸통으로 다리 난간을 만든 앙코르왓 입구의 다리



△ 호텔 앞 조형을 위해 나가를 모방하여 조각하고 세공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자이바르만 7세의 얼굴로 부처를 만든 바이온 사원의 4면 부처



△ 바이온사원의 부처 얼굴을 모방하여 일반 주택에 조형한 모습



△ 앙코르왓 사원의 힌두교 최고신인 비슈누의 부조



△ 캄보디아 공항 입국심사대 천정에 위치한 비슈누신 조형물

## □ 앙코르 문화재 관리 실태에서 느낀 시사점

- 내전이나 분쟁으로 문화재가 파괴되는 것은 그 민족의 정신과 문화의 파괴일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불행한 미래를 짐 지우는 것이고,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옛것은 그 규모와 가치에 상관없이 보존해야 옳을 것이며,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문화재 보존의 의식과 노력은 더욱 필요할 것임.
- 비록, 캄보디아가 세계 최고의 빈민국 중의 하나라고는 하나,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문화유적의 디자인을 도시경관에 활용하는 등 실생활에서 응용 발전시키는 노력은 우리가 많이 본 받아야 할 점임.
- 특히, 문화는 생활양식 그 자체로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우리 함평의 경우에도 미미하지만 불교와 유교, 세시풍속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만큼, 종교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의 이해와 활용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전송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일례로, 함평군립미술관에 자산서원의 우득록 목판과 그 설명 및 가치를 전시 홍보 한다든지, 한국 고유 전통문양과 조형을 수집하여 특별 전시함으로써 그 디자인을 생활에 활용토록 하는 방법 등을 찾아 볼 수 있음.
- 또한, 현재의 우리 생활문화가 후세에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생산적 자원으로 남을 수 있는 만큼, 건축이나 규모있는 건설공사, 자연지형을 바꾸어 놓는 토목공사 등은 세심한 조형과 디자인, 견고한 시공, 사업 전·후의 기록 보존 등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임.

### 3. 자야바르만 7세 병원 (2011. 9. 20. 화. 비오고 흐림)

#### □ 자야바르만 7세 병원 개요

- 병원위치 : 씨엠립(Siem Reap) 시내
- 설립시기 : 1999년
- 설립자 : 비트 리치너(Beat Richner)박사 (1947년 스위스 출신)
- 병원규모 : 700병상 (1일 1천명의 입·퇴원 환자, 2,500명 외진)

#### □ 주요 시찰내용

- 당초 태양광 발전시설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한국에서 설치한 가로등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복지시설을 찾던 중 캄보디아에서 유일한 복지시설인 본 병원을 방문하게 됨.
- 자야바르만 7세병원은 어린이 환자 전용병원으로 스위스 출신인 비트 리치너 박사가 26세때 프놈펜에 있는 칸타보파 병원에 근무 중 내전으로 쫓겨났다가, 45세때인 1992년에 프놈펜에서 제2 칸타보파 병원을 설립하였으며, 1999년에 씨엠립에 추가로 설립한 전액 무료병원임.
- 그는 프놈펜에서 칸타보파 병원 4개, 씨엠립에 1개, 총 5개의 어린이 병원을 운영 중에 있음
- 병원 운영은 첼리스트이기도 한 리치너 박사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병원에서 자선 콘서트를 열어 받은 기부금과 음반 수입금, 스위스의 수상과 관료, 금융가 등 독지가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함.



△ 자야바르만7세 병원과 콘서트홀



△ 어린이병원 설립자인 비트 리치너박사와 병원내부

- 자선 연주회는 처음 야외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명받아 콘서트홀이 별도로 지어졌으며, 기부금 모금을 위한 그림전시, 음반판매 등이 이루어 지고 있음.
- 병원 내에는 소아청소년과 의과대학 [Kantha Bopha Academy of Pediatrics (KBAP)]이 함께 있어, 내과의를 위한 국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할 수 있음.
- 리치너 박사는 캄보디아에서 현재까지 외래환자 9백만명, 입원환자 9십만명, 수술 9만명을 치료하였으며, 그의 병원이 없었다면 55만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함
- 캄보디아에서는 진료비가 비싸고, 의료 수준이 낙후되어 있어 죽을 병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병원으로 연일 병원입구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음.

**The Angkor Declaration**  
*(Correct Medicine for every Sick Child)*

All honorable persons signing this declaration are calling upon Hospitals, Health Institutions, National and International Health Organizations, governmental and not governmental, and all their medical staff to follow the requests by this declaration, so that all their humanitarian and professional actions are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24: Systematical Ill-treatment, Mal-treatment and No-treatment)

**Every child, poor or rich, has the right to be treated in a correct and efficient way, with open access to such medical treatment at any time.**

Therefore the following must be granted:

△ 앙코르 선언문 일부-모든 어린이들은 빈부를 막론하고 항상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병원 선언서

□ 주요 시사점

- 연수단은 병원 앞에서 진료를 대기 중인 부모와 아이들을 동정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간식거리를 제공하였으나, 아픈 가운데서도 해맑고 꾸밈없는 그들의 눈동자와 얼굴에서 오히려 순수한 인간미와 물질로는 느낄 수 없는 위안을 얻고 옴.



△ 병원 앞에서 진료를 대기 중인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는 의원들

## 4. 베트남 하롱베이 세계자연유산 (2011. 9. 21. 수. 맑음)

### □ 하롱베이 개요

- 위치 : 베트남 북동부 하롱만
- 규모 : 해안선 120km, 3,000여개 섬을 포함한 1,553km<sup>2</sup>
- 특징 : 산호초 232종, 복족류 81종, 연체동물류 130종 등 서식
- 1994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 □ 주요 시찰내용

-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을 지정하는 목적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인류의 유산을 보호·복구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뜻이 있으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
- 하롱베이는 1994년에 빼어난 경관으로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00년에는 지질학적 가치에 따라 두 번이나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된 곳임.
- 본 연수단은 비록 함평이 빼어난 자연경관이나 풍부한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롱베이가 세계자연유산 인정을 계기로 자연경관과 수산자원, 지역문화를 어떻게 관광상품화하고 소득화 하는지에 중점을 두었음.
- 하롱베이의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150만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15%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하롱베이가 베트남 북부에 경제적 활력을 가져다 주고 있음.
- 하롱베이가 외국인에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은 1992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트린느 드뇌브와 베트남의 세계적 여배우 린당팜이 주연한 영화 인도차이나에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소개되면서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고, 1994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부터라고 함.

- 현재, 외자유치가 활발하여 호텔만 200여군데가 성업 중이고 400여척의 유람선이 순회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마크를 도처에 활용 하면서, 하롱베이의 전통 문화와 함께 복합유산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 배를 타기 위한 선착장 한 켠에는 기념품과 과일을 파는 노점상이 있었고, 배 샅은 4만동(2달러)이었다. 배 안에는 선장과 그의 가족들로 보이는 보조 일꾼 2명, 배에서 물건을 팔면서 잔심부름을 하는 프리랜서 아가씨, 사진을 찍어 수입을 삼는 여자가 타고 있었음.
- 배를 타고 나가 바다에 형성되어 있는 수산시장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횡감과 투구새우, 죽상어, 새우 등을 팔고 있었음.
- 바다 관광 중에 모터보트나 카누로 갈아타고 조금 더 세심하게 섬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전망대가 있는 섬이나 석회동굴이 있는 섬에서 내려 둘러 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섬에서 파는 기념품은 베트남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상품이었고, 음료수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음.
- 즉, 배를 타고 바다와 섬을 유람하는 동안, 나름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배 운임료, 수산물 판매수입, 모터보트나 카누 이용료, 배에서 파는 음료와 기념품, 사진 인화료 등을 합하여 관광객 1인당 평균 30달러 수준의 지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됨.



△ 세계자연유산 마크 활용사례



△ 하롱베이 바다 내 가두리 수산양식장 및 판매장

## □ 함평에서 배워야 할 주요 시사점

- 하룽베이가 미려한 자연경관과 호수와 같은 잔잔한 바다의 천혜 관광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후에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나게 된 것은, 관광산업이란 관광 여건에 앞서 브랜드나 홍보도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함.
- 함평도 관광여건은 취약하지만, 이미지나 브랜드의 가치는 높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산강부터 함평천을 따라 대동호와 대동댐을 연계한 친수자원과 함평만의 해양자원을 관광객이 직접 들어가 즐길 수 있는 시설과 경관 및 콘텐츠 개발이 중요.
- 하룽베이는 해양자원과 연계한 내륙의 역사문화 탐방코스나 주민의 생활상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더 창출할 수 있는 부가적 요소가 잠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음.
- 관광은 연계 산업의 발달정도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만큼, 역사적 자연적 자원이 빈약한 함평의 경우, 문화예술과 학습이 결합된 전시·공연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관광상품이 단순하고 조잡하면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나, 나름 개성이 있고 소품적인 상품이 많아 친근하고 부담 없는 장점도 있는 만큼, 함평에서도 소품 형태의 독창적인 공예 상품 개발도 필요할 것임.



△ 하룽베이 과일상점 앞의 행상인들



△ 현대화한 하룽베이 재래시장

### ◁ 사진설명:

부스마다 같은 상품을 파는 곳이 많았고, 조잡한 점은 있었으나, 시장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넓고 쾌적하게 조성하였음.

## 5. 하노이 농업대학 (2011. 9. 22. 목. 맑음)

### □ 하룻배이 개요

- 위 치 : 베트남 하노이시 하노이농업대학 내
- 방문기관 : 하노이 농업대학 미작연구소(RRI)
- 주요시설 : 하이브리드쌀 시험포장, 고속 제노타이핑 시스템

### □ 주요 시찰내용

- 베트남 북부 중산간 지역에 적응 가능한 벼작물 품종개발 프로젝트 시험포장 방문
- 상기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은 큐슈대학의 농학연구원과 열대농학연구센터 및 나고야대학의 생물기능 이용연구센터가 하노이 농과대학과 제휴하여 2010.12.3 ~ 2015.12.2 (5년) 기간 동안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베트남 경제가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베트남의 경우 식량부족에 직면하여 있고 도시와의 임금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소득향상이 당면 이슈가 되고 있음.
- 베트남 북부의 중산간 지역은 냉랭한 기후 때문에 40%의 지역이 1기작 밖에 하지 못하고, 농업 인프라가 미비하여 쌀 자급율도 60~70% 밖에 되지 않아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고 함.



△ 하노이 농업대학에서 기념촬영



△ 하노이 농업대학 내 미작연구소



- 이에 따라, 다수확 품종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고, 농업생산비를 절감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북부와 산간지형에 적합한 벼 계통연구를 통해 다수확 품종, 낮은 질소 투입과 병충해에 강한 품종, 조생 품종 등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 상기 프로젝트를 통해 대용량 고속 제노 타이핑으로 효율적인 벼 육종법이 개발되고, 지형적 환경에 따라 단기 생육 고수익의 병충해 저항성을 가진 유망 유전자의 벼를 개발하게 되며, 유망한 벼 계통의 유전적 생태적 특성을 밝힐 수 있게 된다.
- 본 연구를 위해 일본에서는 전문가 6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연구 기자재와 차량을 지원하고, 베트남에서는 공동 연구자와 사무실, 실험실, 시험포장 및 연구활동을 위한 경상경비를 부담하고 있음.
- 현재 대학 내 시험포장은 금년 초에 인공 교배한 첫 번째 품종인 하이브리드벼 품종들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가정용 쌀과 고품질용 쌀 시험포가 나뉘어져 있었음.



△ 시험포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단



△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하는 시험포



△ 시험포 품종별 네임카드



◁ 하노이 농과대학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품종 “베트남 라이 50”으로 1ha당 7.5~11톤 수확이 가능

## □ 주요 시사점

- 본 프로젝트의 놀라운 점은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인 과학기술진흥기구인 JST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에서 추진하는 SATREP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연구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임.
- JST는 정부 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정부 보조로 받아서 3~5년의 장기 프로젝트를 주로 빈민국을 대상으로한 제 3세계와 과학기술 공동연구를 위해 투자하고 있음.
- 연구 분야도 환경과 에너지 뿐 아니라, 생물, 자연재해,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현재 전 세계 27개국과 50여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베트남만 해도 천연고무를 활용한 탄소순환시스템 연구와 지역농업과 생물자원의 융합실험 및 본 신품종 벼 실험까지 3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과 같이 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 자원은 풍부하지만 기술력이 약한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자본과 기술지원을 통해 발전을 견인하면서도, 미지의 자원을 선점하는 효과를 동시에 취함으로써, 국가 이미지와 상업적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 놀라웠음.
- 단순한 시설투자나 자본투자 보다 과학기술과 자원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IV. 결 론

- 현재, 캄보디아는 연간 6.5%대의 경제 성장율을 보이고 있고, 베트남은 7.5~8%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양국간의 경제적 격차는 커보였고, 베트남 국민이 훨씬 역동적이고 부지런하며 생기가 있어 양국간 10년의 격차를 느낄 수 있었음.
- 양국 모두 사회주의 이념과 극심한 내전을 겪은 공통점이 있으나 현재와 같이 차이가 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사회 지도층의 판단과 역할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됨.
- 베트남의 경우 호치민이란 헌신적인 걸출한 리더가 있어 국민의 식을 집약시키는 힘이 있었고, 캄보디아는 폴포트의 잔인한 독재 정치를 겪으면서 더욱 악화 되었다고 판단됨.
- 호치민의 검소한 생활과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했던 그의 정신이 현재도 베트남 국민의 철학적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고, 캄보디아의 경우는 오히려 체념적이고 운명적인 종교로의 귀의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됨.



△ 검소하고 소박했던 호치민의 집무실 (베트남)



△킬링필드 비극을 간직한 와트마이 사원 (캄보디아)

- 금번 연수를 통해, 작은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의 권리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위치에 있지만,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주민과 지역을 사랑하며 봉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세계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꾸준히 키워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음.